

'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529동 지원

- 경로당, 보건소, 어린이집, 의료시설 등 취약계층이용 공공건축물 선정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*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529동을 선정하여 지원한다.

*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('23.3): ('18년) 52.1 → ('30년) 35.0백만톤 (△32.8%)

-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단열·설비 성능 등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핵심사업이다.
-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사업신청한 건축물을 현장 조사하고, 시급성,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.
- 공모기간(4. 19.~5. 10.) 중 접수된 756동 중 단열, 창호, 고효율설비 및 신재생 등 에너지절감 요소 적용 및 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계량화한 배점표에 따라 평가하였다.
-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로당(319동), 보건소(154동), 어린이집(55동), 의료시설(1동) 등 총 529동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.
- 특히, 신청기관에서 높은 에너지절감 효과, 혁신기술 도입 및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홍보거점으로서의 활용성 등 지역의 대표적 우수사례로써 추진하고자 신청한 12동은 시그니처사업*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

*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역확산을 견인하고 효과가 우수한 선진기술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일반 지원대상 대비 최대 2배까지 지원하는 사업

□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“그린리모델링은 ‘국가 탄소중립·녹색 성장 기본계획’에 따른 기존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이다”라면서

○ 이 사업이 2050탄소중립 목표(건물부문 '18년 배출량대비 88.1%감축)달성에 기여하고, 지역자생적 시장생태계 조성과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자발적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

□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그린모델링창조센터(<http://www.greenremodeling.or.kr>)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건축정책관 녹색건축과	책임자	과 장	김연희 (044-201-3768)
		담당자	사무관	최철민 (044-201-3769)
<위탁운영>	국토안전관리원 건축시설성능실	담당자	실 장	김민수 (055-771-4743)
			팀 장	김진영 (055-771-4818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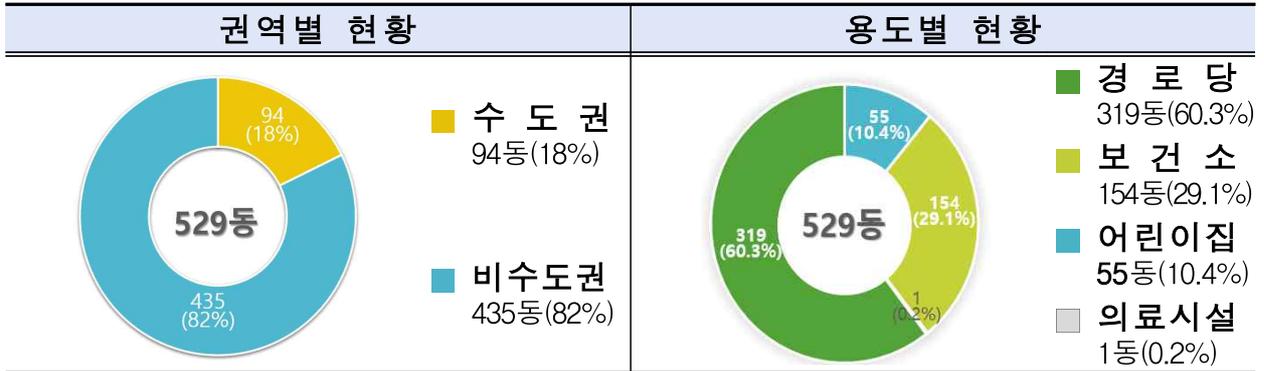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□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권역별·용도별 현황

- '24년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 중 권역별(지자체, 공공기관 포함)로는 수도권이 94동(18%), 비수도권이 435동(82%)이었으며, 용도별로는 경로당이 319동(60.3%)으로 지원대상 중 가장 많았다.

《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선정 현황 》



《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선정 세부현황(단위 동) 》

구분	합계(시그니처)	어린이집	보건소	의료시설	경로당	
합 계	529(12)	55(3)	154(3)	1	319(6)	
광역시 지 체	서울	34	17	0	0	17
	부산	4	1	0	0	3
	대구	6	2	3	0	1
	인천	8	0	4	0	4
	광주	5	0	0	0	5
	대전	7	1	0	0	6
	울산	2(1)	1(1)	0	0	1
	세종	2(1)	0	0	0	2(1)
	경기	51(3)	7	5(1)	0	39(2)
	강원	152(3)	2	1	0	149(3)
	충북	24	3	21	0	0
	충남	42	3	20	0	19
	전북	20	1	16	0	3
	전남	65(2)	4(1)	25(1)	0	36
	경북	67(1)	3	43(1)	0	21
	경남	31(1)	5(1)	13	0	13
	제주	5	1	3	1	0
중앙행정	0	0	0	0	0	
공공기관*	4	4	0	0	0	

* 공공기관은 지역별로 서울, 세종, 충남, 충북 각각 1개소씩 선정되었음